

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지 말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정치검찰 행태 청산 당부
윤 “국민의 검찰 만들 것”
조국 수석과 장시간 대화 눈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었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한 뒤 “청와대는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공직기강과 부패척결 기조를 윤 신임 총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더욱 다잡아 나가면서 특히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말고 원칙대로 검찰총장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강한 기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주변에 있는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옆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은 내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꼽힌다.

조 수석과 윤 총장은 함께 차를 마시고, 환담장에서도 문 대통령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는 등 계속 함께 움직이며 장시간 대

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상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 앞서 윤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와 청와대 내부에 걸린 작품들을 감상하는 등 다정한 분위기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투자업체인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자 수십억원 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주목받은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방부 ‘러 독도영공 침범’ 증거 제시

한국·러시아 실무협의…러측 “본국에 전달할 것”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오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부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

다. 특히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늘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측은 동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평화당, 반쪽난 DJ 추모행사

당권과 생가 방문 행사…비당권과 세규합 시동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25일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 ‘DJ 정신’ 계승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당권파와 갈등 중인 비당권파의 불참으로 행사는 ‘반쪽’ 신세가 됐다. 비당권파는 옛 국민의당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중진들과 회동을 하는 등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등 당권파와 종파파로 분류되는 김광수 사무총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전남 신안 하의도 김 전 대통령 생가 방

문 행사를 열었다.

평화당은 하의면사무소에서 발표한 ‘하의도선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 우뚝 서고, 정의당과 개혁 경쟁으로 진보개혁 진영을 강화하겠다”며 “서해안벨트와 수도권을 총선 전략지로 정하고,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개혁연대 또는 연합체를 구성하겠다”며 “सान별 정책연대·인적교류와 공동연대를 통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선거연합 또는 합당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른미래, 안철수 조기 등판론

혁신위 좌초에 분당 위기…바른정당계 “결자해지 해야”

혁신위원회 좌초로 분당 위기에 직면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안철수 조기 등판론’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이 존폐의 갈림길에 선 만큼 공동 창업주 중 한 명이자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안철수 전 의원이 입장을 앞당겨 독일에서 귀국해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조기 등판한다고 해도 복잡하게 얽힌 당내 갈등 구조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조기 등판론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안철수계 인사들은 안 전 의원이 현재의 진흙탕 싸움에 가담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위해 축적한 정치 에너지를 무의미

하게 소진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9월 독일로 출국한 안 전 의원은 8월 말 비자가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9월 귀국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안철수계 인사들은 안 전 의원의 거취에 합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안 전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해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손을 맞잡고 마지막 정치적 승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보 공방에 멀어지는 추경

한국당, 중·러 도발·북 미사일 놓고 원포인트 국회 제안

여야는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

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집중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

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정부·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라는 돌발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추경 처리는 얘기하지 않고 국면 전환용으로 안보 국회를 제안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개특위 소위원회장 선출 무산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제1소위원장 교체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만 이어진 끝에 다음 달 13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심사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유지를, 한국당은 교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앞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면서 “다음달 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고, 그동안 간사끼리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장성토지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한 경

좌측 : 5m 이격 편백숲, 꿈의 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